

1920年代 開城商人들의 紅蔘販路 視察記 考察*

— 『中遊日記』와 『香臺紀覽』을 中心으로

崔洛民**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4. 開城商人과 在中 韓人 人蔘商 |
| 2. 開城商人과 『中遊日記』 | 1) 上海의 人蔘商 玉觀彬 |
| 3. 開城商人과 『香臺紀覽』 | 2) 上海의 人蔘商 李惟善 |
| | 5. 나오는 말 |

【초록】

한반도의 인삼은 중국의 비단과 차, 일본의 은과 함께 동아시아 상품교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상품이었고, 지금도 그 상품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인삼이 해외 수출상품으로 확립된 것은 개성상인들의 노력에 힘입은바가 크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개성상인 孫鳳祥과 孔聖學은 紅蔘과 白蔘 등 인삼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한 주역이었다. 전통학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춘 儒商 손봉상과 공성학은 중국, 대만과 홍콩 등지의 홍삼판매처를 시찰한 자신들의 활동을 『中遊日記』와 『香臺紀覽』에 남겼다. 그러나 개성상인들이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시장 시찰기라 할 두 책을 텍스트로 한 홍삼판로 시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개성상인들의 중국 및 세계 인삼시장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고려 인삼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키워드】 孔聖學, 紅蔘, 白蔘, 三井物産, 開城商人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81098)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재연구소 HK교수 (qiushui@kmou.ac.kr)

1. 들어가는 말

고구려와 백제,¹⁾ 신라의 삼국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의 유구한 역사를 통해 인삼은 한반도를 대표하는 수출상품으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무역량이나 무역액에 있어서는 중국의 비단이나 일본의 은에 비해 그 규모가 적었지만 한반도에서 생산된 인삼은 비단, 차, 도자기, 은 등과 함께 동아시아 상품교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품으로 작용해 왔던 것이다.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인삼의 약효는 알바루 세메두(Alvaro Semedo)나 마르티노 마르티니(Martino Martini)와 같은 예수회(Society of Jesus) 선교사들에 의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지로 알려지기 시작했다.²⁾ 山蓼이나 野蓼과 같은 ‘水蓼’을 주요 상품으로 하던 인삼 교역은 18세기부터 재배한 삼을 증기로 찌서 익히는 ‘紅蓼’이 보편화되면서 그 유통범위는 확대되었고, 유통량도 증대되었다.

조선왕실의 재정에 있어 보물과도 같은 역할을 담당했던 홍삼은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함께 서구열강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거대기업 三井物産의 전매품이 되었다. 三井物産이 홍삼수출을 통해 취하는 이윤이 커질수록 인삼농가한테 사들이는 수매가는 헐해졌고, 密蓼에 대한 법령과 단속은 물샐 틈도 없이 엄해졌다. 때문에 1920년대부터 개성의 蓼業家들은 三井物産의 紅蓼專賣權指定을 폐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다. 한편, 홍삼판매에서 배제당한 개성지역의 삼업가와 상인들은 1910년대부터 이제껏 중시하지 않았던 ‘白蓼’을 상품화하여 국내 판매와 함께 해외수출을 시도하였다.³⁾ 三井物産이 독점한 홍삼과 달리 백삼은 일제강점기 개성상인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었고, 해외로 이주하는 조선인과 유학생의 생활을 돕는 중요한 방편이 되었으며, 대한민국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1923년 朝鮮總督府 專賣局과 三井物産은 개성지역의 인삼재배와 홍삼생산을 주도하여 ‘人蓼大王’이라 불렸던 開城蓼業組合長 孫鳳祥에게 중국대륙 내 홍삼판로 시찰을 권유하였다. 중국 홍삼판로 시찰을 오랜 숙원으로 삼았던 삼업조합장 손봉상은 부조합장 孔聖學 등 6명으로 시찰단을 꾸려, 4월 1일 개성을 떠나 일본을 경유하여

1) 陶弘景, 『本草經集注』: “(人蓼)乃重百濟者, 形細而見者, 氣味薄於上黨, 次用高麗, 高麗即是遼東, 形大而虛軟, 不及百濟.” 張寅成, 「古代韓國의 道教和 道教文化」, 『成大歷史學報』, 第39號, 2010.10, p.52. 再引用.

2) 설혜심, 『인삼의 세계사』, 휴머니스트, 2020, pp.41-61.

3)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상인의 백삼(白蓼) 상품화와 판매 확대 활동」, 『의사학』, 제20권, 2011.06, pp.83-118.

당시 중국 내 홍삼시장의 중심이었던 上海를 시찰하였다. 이후 漢口, 北京, 天津, 芝罘, 大連 등지의 三井物産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하고 杭州, 南京, 曲阜, 廬山, 泰山 등 명승고적을 유람한 후 瀋陽을 거쳐 철도를 이용하여 귀국하였다. 그해 가을 공성학은 43일간의 여정을 기록한 일기와 漢詩를 정리하여 『中遊日記』⁴⁾를 간행했다. 1928년 다시 三井物産의 초청을 받은 손봉상과 공성학 등은 일본을 경유하여 臺灣과 厦門, 香港, 澳門, 廣州 등 중국의 남부 대도시를 방문하여 홍삼 판매현황을 살펴보았다. 당시 일행의 통역을 맡았던 孔聖求是 귀국 후 42일간의 일정을 기록한 자신의 일기와 공성학의 한시를 모아 『香臺紀覽』⁵⁾을 출간했다.

『中遊日記』와 『香臺紀覽』에 대한 기왕의 연구는 3편에 불과하다.⁶⁾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1920년대 개성상인의 ‘해외 홍삼시장 시찰기’라는 측면에 주의하여 두 책을 연구한 결과물이 산출되지 않고 있다. 본문에서는 『中遊日記』와 『香臺紀覽』의 기록에 기초하여 첫째, 『中遊日記』에 포함된 홍삼판로 시찰에 대한 기록들, 특히 상해에서의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개성상인들의 세계 인삼시장에 대한 인식 등을 확인할 것이다. 둘째, 『香臺紀覽』의 기록을 토대로 대만을 포함한 홍콩과 하문 등 중국 남부와 동남아지역의 홍삼판로 개척을 위한 그들의 열정을 살펴볼 것이다. 셋째, 개성상인들이 상해에서 만난 倍達公司 玉觀彬과 志成公司 李惟善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홍삼 전매권을 가진 三井物産으로부터 제약받지 않는 독자적인 해외 백삼 판매 시장 개척을 위한 개성상인들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범의 아가리”처럼 변해버린 위험한 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했던 개성상인들의 적극적인 상업 활동의 뿌리를 탐구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동서양의 거대한 교역 네트워크 속에서 한반도를 출발점으로 하고, 개성상인들이 주도한 “인삼의 길(人蔘之路, Ginseng Road)”이 존재했음을 드러내는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본문에서 인용한 『中遊日記』의 내용은 박동욱·이은주의 번역본(휴머니스트, 2018)을 저본으로 하였다.

5) 본문에서 인용한 『香臺紀覽』의 기행문은 박동욱의 번역본(태학사, 2014)을, 공성학의 漢詩는 공성구가 편한 『香臺紀覽』(中央印書局, 1931)을 저본으로 하였다.

6) 이은주는 「1923년 개성상인의 중국유람기 『中遊日記』연구」(『국문학연구』, 제25호, 2012)를 통해 공성학이 본 낯익은 중국과 낯선 중국의 모습을 대비해 보여주었다. 대만 학자 陳慶智는 「『香臺紀覽』 기록에 투영된 일제 강점기 臺灣의 모습」(『동아시아문화연구』, 제56집, 2014)을 통해 공성학의 눈에 비친 대만의 인상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고, 대만 풍경과 명승에 숨겨져 있던 사상 同化的인 뜻과 함께 대만과 한국 사이의 역사·문화적 연계를 살폈고, 「『香臺紀覽』을 통해 본 일제 강점기 대만의 교통과 숙박 시설」(『韓國漢文學研究』, 제57집, 2015)에서는 조선 사람이 당시 대만의 교통과 숙박 시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의 잘 알려지지 않았던 대만의 실제모습을 구축하였다.

2. 開城商人과 『中遊日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재계의 불황 등 여러 원인들로 인해 수년 이래 중국 내 홍삼 수요가 부진하였다. 1919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일본의 대중국 21개 조항의 요구를 승인하자, 이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5.4 운동’을 펼치면서 일본상품 배척운동이 심화되었고 芝罘에 있는 三井物産의 창고에는 홍삼이 산적하게 되었다. 1920년 국내에서는 產地 경작자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본의 거대자본 三井物産에 홍삼의 독점 판매권을 拂下한 총독부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났다.⁷⁾ 이에 총독부는 홍삼의 판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專賣局 과장을 파견하여 중국 내 실제수요상황을 조사하고, 三井物産에 명하여 중국의 중부와 북부 지역에 대한 판매진흥책을 도모하였으나 실효가 없었다. 같은 해 三井物産은 수백 만 원에 상당하는 홍삼 재고품을 처리하고, 구매력 회복을 위해 중국 남부와 南洋 각지의 지점장들을 서울에 소집하고 약간의 손해를 감내하고서라도 홍삼을 방출하기로 결정한 후 홍삼 3만 수천 근을 판매했다.⁸⁾

1923년 봄, 총독부 전매국 開城出張所 소장 이모리 겐조(伊森賢三)는 개성삼업조합 조합장이자 高麗蔘業社 사장으로 개성지역 삼업가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孫鳳祥(1861?~1937)에게 중국 내 홍삼판로에 대한 시찰을 권유하였다. ‘人蔘王’⁹⁾이라 불렸던 손봉상은 평소 “홍삼판로의 시찰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조합에서 마땅히 실행해야 할 숙원”사업으로 여기던 부조합장 孔聖學(1879~1957),¹⁰⁾ “三井物産株式會社 紅蔘輸出權과 時變에 대한 公課金 制定 等に 合理치 못한 것을 當局에 抗議코자 開城 사람의 代表로 上京하여 爲政當局者에게 가삼을 서늘케 한” 理事 朴鳳鎮,¹¹⁾ 강직하고 업무처리가 분명한 書記長 趙明鎬, 개성의 대부호 金元培와 함께 시찰단을 꾸리고 4천원의 경비를 지출하여 4월 1일, 개성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長江 남북 1만 6,000리를 돌아보는 43일간의 여정에 올랐다.

京城에 도착한 개성삼업조합시찰단은 먼저 자신들을 안내하고, 편의를 도모해 줄

7) 『東亞日報』, 1920.04.16, 「紅蔘賣下에 對하여: 總督政治의 一端을 評함」.

8) 『朝鮮日報』, 1921.04.24, 「總督府蔘政如何」.

9) 『朝鮮日報』, 1923.06.09, 「人蔘販路視察 開城蔘業組合代表」: “손봉상씨는 원래개성의 큰 자본가로 인삼경작에대하여는매년전매국에 홍삼원료로이만근을 공급하고 백삼과미삼등은대략 오만근을 매년산출하는데이에대한가액이칠십만원이상에달하여 가히개성에인삼왕(人蔘王)이라할만한바…….”

10) 공성학, 박동욱·이은주 역, 『중유일기』, 휴머니스트, 2018, p.33.

11) 柳順根·權一, 「開城踏査記」, 『신민』, 53호, 1929.11.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4(경기도·황해도)』, 국학자료원, 2013, p.128.

三井物産 경성 지점장 대리 아마노 유노스케(天野雄之輔)의 영접을 받았다. 아마노는 大韓帝國 때부터 홍삼 업무를 20년간 담당해오고, 중국 출장 경험이 여섯 번이나 되는 홍삼 전문가였다. 홍삼관련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먼저 전매국장 아오키 가이조(青木戒三)의 안내로 사이토 마코토 총독과 아리요시 주이치(有吉忠一) 정부총감을 방문하여 고별인사를 하고 훈사를 들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홍삼 전매를 통해 상당한 재정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¹²⁾ 홍삼의 생산과 판매시장 확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찰단은 홍삼의 생산지 개성과 소비지 중국대륙을 연결하는 가장 빠른 수단인 京奉線(北京-奉天) 열차를 이용하지 않고, 釜山에서 선편을 이용해 일본을 경유하여 상해로 이동하였다. 이전시기 홍삼을 수출하던 개성상인들이 이용하던 육로를 대신하여 해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번 시찰을 준비한 三井物産은 현재 중국의 각 철로 주변에 도적과 반일세력이 많아 시찰단의 안전을 고려하여 시모노세키를 경유해 나가사키에서 상해로 가는 바닷길을 선택했다고 했지만 다른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찰단이 출발하기 전인 2월 11일 日本郵船은 나가사키와 상해를 잇는 항로에 영국에서 주문제작한 세계 선진수준의 쾌속 호화 증기선 上海丸(5259톤)과 長崎丸(5272톤)을 처녀 취항시켰다. 오전 9시 나가사키 항구를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10시 상해에 도착하고, 오전 6시 상해를 출발하여 다음날 9시 나가사키에 도착하는 새로운 해로의 개통을 두고 당시 일본 언론은 “중일교통의 신기원”¹³⁾이라 대서특필하였다. 4월 5일 오전 9시 나가사키를 출발하여 다음날 오전 10시 상해항에 도착한 시찰단은 일본우선이 광고하는 중일교통의 신기원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경성을 떠나 부산에 도착한 일행은 釜山紡織會社를 참관했고, 일본에서는 下關條約이 체결된 春帆樓, 三井物産의 주력 기업인 三池炭鑛과 항구, 長崎造船所 등 일본이 자랑하는 근대적인 산업시설들을 시찰하였다. 공성학은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漢城에서 출발할 때는 홍삼 판로에 시찰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門司에서 여기까지 오로지 三井支店으로부터만 환연 연회와 전송 연회를 받고 보니, 지금 우리 일행은 바로 三井에서 주최한 여행의 관광단이 된 것이군요.¹⁴⁾

12) 『京城日報』, 1916.03.10, 「紅蔘專売事業に就て---專売課長 平井三男氏談」: “紅蔘專売に依る朝鮮總督府の收入は左の通りにして貴重なる財源と謂ふことを得べし大正4年 1,391,000圓, 大正3年 1,276,000圓, 大正2年 711,000圓, 大正1年 394,000圓, 明治44年 121,000圓.”

13) 鄭祖恩, 『上海的日本文化地圖』, 上海錦繡文章出版社, 2010, p.12.

14) 공성학, 위의 책, p.51.

三井物産은 개성뿐만 아니라 식민지 조선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개성상인들에게 자사의 역량과 근대화된 일본을 보여주기 위해 세심한 안배를 하고, 다양한 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三井物産이 준비한 일정과 연회를 소화하면서 개성상인들은 일본의 상권이 동양에서 기세를 떨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상해는 三井物産의 홍삼판매에 있어 제일 중요한 도시였다. 일찍부터 건강식품 시장이 활성화 되었던 상해에서는 19세기 30년대가 되면 홍삼과 녹용, 銀耳(흰목이 버섯)의 경영업무가 한약방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상해에서 제일 먼저 개업한 參戶는 淸 道光18년(1838)에 개업한 阜昌參戶였고, 光緒32년 상해에는 전문 인삼상점이 15곳이나 있었는데 모두 南市里 咸瓜街에 위치하여 독립적인 업종을 이루었다. 그 가운데 阜昌參戶(孔愼甫), 德昌參戶(鄭栽祺), 葆大參戶(金階), 元昌參戶(胡錫琪)가 상해의 四大參戶였다.¹⁵⁾ 三井物産은 오랫동안 조선의 상인들과 함께 고려인삼을 취급해온 이들 사대삼호 외에 裕豐德參戶(鄭天陵)와도 홍삼특약판매계약을 맺고 있었고, 香港, 廣東, 厦門, 汕頭, 臺灣 등 중국 각지에 홍삼특약판매를 하는 중국 삼호를 갖고 있었다.¹⁶⁾ 그러나 三井物産은 상해에서 활동하는 金文公司, 倍達公司 등 홍삼판매를 희망하는 한인 인삼상인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在中 한인들의 홍삼 판매 참여를 일체 불허하였다.

4월 6일, 상해에 도착한 일행은 三井物産 上海支店 雜貨部 紅蔘係 직원의 안내로 숙소를 정하고, 상해지점장 노히라 미치오(野平道南)을 방문하였다. 이때 시찰단은 상해 지점장으로부터 “年前에는 홍삼이 쌓여 있어 처치곤란이었지만, 다년간 노력한 결과 재고품을 모두 팔아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¹⁷⁾라는 최근 판매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다음날, 일본영사관을 방문한 일행은 광고를 통한 홍삼 판매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 후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시찰단은 三井物産 홍삼계 직원, 상해의 다섯 삼호들과 함께 葆大參戶에 모여 장시간 홍삼의 판매현황에 대해 논의하고 홍삼의 품질, 가격, 판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때 상해의 다섯 삼호들은 시찰단에게 매년 평균적으로 판매하는 홍삼의 근수가 1만 2,000~1만 3,000근이 되니, 만일 가격을 조금 싸게 팔면 2만 근 이상도 아무런 염려 없이 판매할 수 있을

15) “19世紀30年代, 參茸、銀耳的經營業務從中藥店分離出來。上海最早的參店是淸道光十八年(1838年)開設的阜昌參店。至淸光緒三十二年(1906年), 上海已有專業參店15家, 均地處南市里咸瓜街, 形成一個獨立的行業。其中阜昌參店、德昌參店、葆大參店、元昌參店成為上海四大參店。民國10年(1921年), 參店34家。民國16年增至50家。其中以批發為主的養真參店、豐大參店、寶昌參店、怡大豐參店、同昌參店、久康參店、永裕泰參店、葆豐參店和德潤參店實力較為雄厚, 批發銷售對象遍及全國。”『上海醫藥志』, <http://www.shtong.gov.cn>.

16) 香港(順泰, 義泰, 利源長, 永泰豐, 益和隆, 萬松泰, 萬興昌), 廣東(謙順惠, 同興, 永泰豐, 萬興昌), 厦門(朝德泰, 豐美), 汕頭(信泰贊記), 臺灣(捷裕蔘莊). 공성학, 위의 책, p.65.

17) “年前紅蔘積貨困難, 而多年努力結果, 盡售舊貨, 得好成績.” 공성학, 위의 책, p.264.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공성학은 三井物産의 장부상의 조사표를 근거로 하고, 다섯 삼호가 구두로 설명한 실제 판매상황을 참고해 紅蔘販賣斤數明細表(大正九年以降), 天蔘과 地蔘의 販賣價格表, 各店別 取扱斤數表(天地蔘共)를 작성하였다.

<표1> 各店別取扱斤數表

取扱店	九下期 (1920年)	十年上期 (1921年)	十年下期 (1921年)	十一年上期 (1922年)	十一年下期 (1922年)	十二年上期 (1923年)
上海	12,730斤	12,300	7,360	9,312	4,350	12,578
香港	2,790	3,450	6,540	3,275	2,250	4,010
廣東	1,600	2,030	1,930	2,289	310	1,740
廈門	1,295	2,880	1,140	1,920	780	2,320
汕頭	390	1,050	1,140	900	-	-
福州	70	135	140	40	125	100
臺北	1,010	1,290	1,200	670	540	540
漢口	630	390	390	120	60	660
天津	41	161	3	17	-	30
北京	-	-	96	-	70	-
芝罘	240	242	242	212	124	1,117
新嘉坡	859	1228	634	562	574	679
泗水	30	75	84	96	41	64
盤谷	-	180	48	280	10	130
吧城	-	26	16	34	28	10
西貢	110	110	40	140	76	48
蘭貢	-	-	50	35	44	90
海防	10	10	-	-	-	-
スマラン	-	40	36	29	30	31
マニラ	-	-	-	2	-	8
桑港	-	-	-	-	37	-
孟買	-	-	-	-	2	-
京城	-	92	35	22	46	4
計	21,805	25,689	21,024	19,955	9,497	24,159

개성상인들은 三井物産이 제공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몇 해 전 금융공황 때 재고품이 산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三井의 대규모 자본이 아니었더라면 불가능 했을 것”¹⁸⁾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시찰단은 泗水

18) “若以年前金融恐慌時，積貨如山，而猶能維持價格者，果非三井之大資本，莫可以如此也.” 공성학,

(수라바야), 盤谷(방콕), 吧城(자카르타), 西貢(사이공), 蘭貢(랭군), 세마랑, 孟買(뭄바이) 등 三井物産의 동남아지역에 대한 홍삼 판매상황과 함께 새로운 홍삼시장의 판매 신장을 위해 신문광고, 견본 기증품, 영화, 광고, 선전 인쇄물을 배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이 밖에 南洋諸島와 暹羅(시암)지방은 소위 華僑의 근거지이며, 특히 싱가포르와 홍콩에 있는 三井物産 지점의 판매성적이 최근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三井物産의 지점이나 출장소가 설치된 이 동남아지역들은 화교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에 진출한 한인 인삼행상들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했다.¹⁹⁾

시찰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三井物産 상해지점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지역에 대한 홍삼판매를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들이 매년 산출하는 조사표에 근거하여 일 년에 3만 5,000근 내지 4만 근 까지는 판매에 우려가 없는 호경기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그들이 중국의 삼호와 더불어 박리다매 위주로 경영 방침을 바꾸지나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 또한 시찰단은 매년 상해에서 판매되는 백삼 가운데 만주산이 2만근, 미국산이 1만근, 일본산이 10만근에 달하지만 조선산은 없다는 사실과 함께 天津, 漢口, 北京 등 중국 전역에서 판매되는 각국 백삼의 연간 판매량과 가격을 확인하였다.²⁰⁾ 시찰단은 조선산 백삼의 판매가 제일 취약해 만약 앞으로도 계속 힘써 선전하지 않는다면 신뢰할 만한 판로를 보장받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三井物産이 독점권을 갖지 않은 백삼을 중국시장에 대량으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시찰단은 三井物産과 상해의 인삼상인들이 제공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중국에서도 北方人보다 南方人이 더욱 高麗人蔘을 賞美하며, 南方人보다 南洋方面의 華僑들이 더욱 高麗人蔘을 愛好寶貴”²¹⁾ 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 한구와 북경, 천진을 방문하여 중국 중부와 북부의 인삼시장의 현황을 직접 목도하였다. 당시 북경 삼호의 소매상은 대략 40戶이며, 판로는 대부분 고관들이 선물용으로 사용하도록 파는 것이었는데 혁명 이후 아무도 선물을 하지 않아 東昌號의 1년 판매량이 30~40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반도와 중국 간의 홍삼무역은 육로에서 해로로, 북경에서 상해로 그 중심이 옮겨간 것이다.

시찰단은 三井物産이 인천에서 운송해온 홍삼을 보관하고 주문에 따라 각 지역으로 나누어 보내는 홍삼저장고가 있는 芝罘, 靑島, 大連, 安東 등을 방문하여 삼호들

위의 책, p.270.

19) 김도형, 「한국인의 동남아지역 진출과 인식」,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지역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5, 독립기념관, 2008. 참고

20) 공성학, 위의 책, pp.66-67.

21) 『朝鮮日報』, 1923.02.01, 「高麗人蔘輸出에 對하여(1) - 특히 開城蔘業家諸氏에게」.

을 만나고 시장을 조사했지만 홍삼 판매현황에 대한 특별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공성학은 先代의 개성상인들이 활동하던 燕趙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인삼판매 상황을 탐문하던 당시의 심경을 한시에 담아내었다.²²⁾

問余何事入中州	무슨 일로 중국에 왔나고 나에게 묻나니
蔘市彷徨汗漫秋	인삼시장을 이리저리 땀 흘리며 다녔네.
浮生活計爭蝸角	덧없는 인생 생계를 위해 蝸角을 다투고
世路危機料虎頭	세상의 어려움은 호랑이 아가리인가 싶네.
未逢燕趙悲歌士	燕과 趙의 슬픈 노래를 부르는 선비를 만나지 못했으니
豈擬江淮壯歲遊	어찌 江淮의 멋진 유람에 비유하리오.
時變有觀策無用	시국이 변하여 계책도 소용없으니
不如歸臥故林邱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네. ²³⁾

3. 開城商人과 『香臺紀覽』

1923년 중국내 홍삼 판로에 대한 시찰을 마치고 귀국한 개성삼업조합장 손봉상은 상해에서 중국 상인과 함께 홍삼의 품질, 가격, 판로 등을 의논했던 일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이따금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고 감회에 젖기도 했지만, 黃浦 이남의 대도시들을 방문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²⁴⁾ 그러나 1925년 상해에서 ‘5·30 운동’이 발발하면서 아시아의 경제중심지이자 홍삼의 최대 소비지인 상해에서는 민족주의와 마르크시즘이 고양되었고, 중국인의 대일 감정도 급격히 나빠져 일본제품에 대한 배척이 심화되었다.

三井物産이 판매하는 홍삼이 일본제품으로 간주되어 중국 홍삼시장이 부침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남부도시들을 시찰하고자 했던 개성상인들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1928년 봄, 전매국 개성출장소장 이모리(伊森)는 손봉상과 공성학에게 대만과 홍콩 등 중국 남부지역 대도시의 홍삼판로에 대한 시찰을 권유하였다.

삼업조합을 설립할 때부터 홍삼의 판로가 날마다 중국 일대에 거듭 확장되었으니,

22) “나는 정치가가 아니었으므로 중국의 형세가 어떠어떠하다고는 말할 수 없었고, 저술가가 아니었으므로 또한 명산과 대천이 내가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된 것도 없었다. 그저 燕趙의 시가지를 배회하며 고려의 野蔘 현황에 대해 묻고 다녔으므로 이 여행 기록은 피상적이고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공성학, 위의 책, p.254.

23) 공성학, 위의 책, p.206.

24) 손봉상, 『中遊日記』序, p.25.

상해와 홍콩은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었다. 지난 계해년(1923)에 상해의 판로는 이미 시찰하였고, 홍콩을 경영한 것이 또 여러 해가 되었다. 올 봄에 비로소 그 의논을 결정하였고, 조합장 손봉상과 부조합장 공성학 두 사람이 동반하여 시찰 길에 올랐다.²⁵⁾

이번 시찰여행의 주요 목적지는 1923년 방문이후, 홍삼판매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른 홍콩이었다. 그러나 손봉상과 공성학이 홍콩을 방문하기 위해 여권을 만들고 三井物産과 일정을 조절하던 4월 초, 일본군이 山東을 공격하여 ‘濟南事變’을 일으키면서 일본과 일본상품에 대한 중국인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中國動亂으로 중국을 유일한 수출국으로 하던 홍삼수출이 심대한 타격을 받아 1월부터 3월말까지 수출가격이 73,361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95,951원보다 약 반감했다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보도 되었다.²⁶⁾ 때문인지 이번 시찰은 첫 번째보다 규모가 축소되어 손봉상과 공성학 그리고 1919년 개성삼업조합에 참여한 蔘業技手 이토 기쿠지로(伊藤菊治郎)가 수행원으로, 통역원이자 기록원으로 공성학의 동생 공성구가 동행했다. 三井物産에서는 아마노 유노스케가 서울에서 합류하였다.

1928년 4월 30일, 일행은 출발에 앞서 전매국 개성출장소장을 찾아 작별인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며 기차에 올라 부산으로 바로 이동하였다. 총독부를 방문해 총독과 정무총감을 만나 인사를 하고 훈사를 들었던 앞선 시찰과는 그 분위기가 달랐고, 시찰단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다. 국내외 홍삼판매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지 공성학은 개성을 떠나며 해외 인삼시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시를 지었다.

中州遊未遍,	중국(인삼시장)을 다 돌아보지 못해
又向日南天.	또다시 태양의 남쪽 하늘을 향하네.
海岳征鞭外,	바다와 산은 채찍 밖에 있고
鶯花祖道前.	피꼬리와 봄꽃은 조도(祖道) 앞에 있네.
幽期難再得,	은밀한 약속은 다시 얻기 어려운데
俗累易相牽.	세간의 잡사는 쉬이 서로 당기네.
萬里乘桴意,	만 리 길 배에 오르는 뜻은
翩然不讓先.	재빨리 움직여 선수를 양보치 않고자 함이네. ²⁷⁾

25) 공성구, 위의 책, p.15.

26) 『東亞日報』, 1928.05.26: “中國을唯一한顧客으로 삼는朝鮮特産物인紅蔘朝鮮對中貿易品中動亂의打撃을바든배가가장甚大한바此에대하야稅務課調査에依하면本年一月以後三月末에至하는輸出價格은73,361圓으로此를前年同期의32,874원이다.”

27) 공성학, 「發開城」, 孔聖求, 『香臺紀覽』, 中央印書局, 1931.

중국의 남부 도시들을 시찰할 기회를 어렵게 얻은 개성상인들의 첫 번째 방문지는 일본제국주의의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이자, 三井物産이 강력한 경제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대만이였다. 조선의 공업계 발달로 인해 각종 공업용 원료를 대만으로부터 들여올 필요가 생기게 되면서, 三井財閥 계열의 城崎汽船이 臺灣-朝鮮航路를 열었고,²⁸⁾ 시찰단이 출발하기 직전인 4月에는 日本郵船의 子會社인 近海郵輪株式會社에서 神州丸(2284톤), 第二養老丸(2,202톤) 2척을 취항시켜 매달 2회 仁川, 基隆, 高雄 간을 직항하는 해로를 개척하여 양국 간 무역액이 증가하고 있었다.²⁹⁾ 국내 언론에서도 상인들의 대만 시찰과 무역을 독려하는 기사가 보도³⁰⁾되었던 만큼, 개성상인들이 三井物産 관계자와 함께 대만을 방문한 목적은 홍삼의 판로를 시찰하는 것 외에도 백삼과 인삼제품의 판로를 모색하고, 새롭게 시작한 釀造事業에 필요한 臺灣의 大米, 沙糖, 糖蜜과 같은 원료 확보를 위한 목적도 있었던 같다.

조선과 대만을 연결하는 직항로가 열렸지만 여행객들은 여전히 일본의 모지를 경유하는 항로를 주로 이용하였다. 5월 2일 오후, 일행은 시모노세키에서 8,999톤급 吉野丸에 승선하여 4日 오후 ‘新釜山’이라고도 불렀던 基隆港에 도착한 후, 기차를 이용해 臺北으로 이동하였다. 1923년 홍삼판로시찰을 통해 손봉상과 공성학은 대북이 상해나 홍콩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대만해협을 사이한 하문과 함께 중요한 홍삼 소비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³¹⁾ 언제부터 대만에 한인들이 이동하고, 정주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지만, 초기 대만 이주민 역시 인삼판매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³²⁾ 臺灣總督府 자료에 의하면 대만에 상주하는 한인이 처음 통계에 편입된 것은 1910년이고,³³⁾ 1928년 시찰단이 대만을 방문했을 당시 현지에는 약 515

28) 『臺灣日日新報』, 1927.02.15.

29) 京城商業會議所月報, 『朝鮮經濟雜誌』 第百七十二號(1930.04)

30) 『東亞日報』, 1928년 6월 30일, 「臺灣仁川間 定期航路開始, 商人視察에 必要」.

31) 앞의 <표1>을 참고 바람.

32) “연래 고려인이 다량의 인삼을 휴대하고 대만에 와서 판매를 하는 자가 한 사람에 그치지 않고, 한 차례에 거치지 않는다. 아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바다를 건너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 최근 숙질 관계인 두 사람이 고려인삼을 휴대하고 상해에서 배를 세내어 하문으로 왔고, 하문에서 다시 운선을 타고 대북에 도착하였다.(年來高麗人多攜參枝渡臺販賣, 已不止一人, 亦不止一次, 大約獲利頗多, 故不惜重洋跋涉也. 如近日又有兩人云係叔侄仍帶高麗參從上海買棹赴廈, 由廈乘輪至臺北也.)” 『臺灣日日新報』, 第427號, 第4版, 1899.10.03. 『漢文臺灣日日新報』則報導了一則販賣人參後有餘裕代為娼妓脫籍之事. 第3343號, 第4版, 1909.06.23. 許俊雅, 「朝鮮作家朴潤元在臺作品及其臺灣紀行析論」, 『成大中文學報』, 第34期, 2011, p.32. 再引用.

33) “일제강점기에도 동남아지역에 거주하였던 한인들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지만 1935년 10월 조선총독부에서 세계 28개국에 산재한 한인들의 숫자를 발표한 자료가 있다. 이를 보면 한국 밖에 산재한 한인의 총수가 2,783,254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아시아지역인 홍콩 22名, 오문 2명, 월남 54명, 인도 15명, 필리핀 42명, 말레이반도 18명, 대만 1,604명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

명의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5월 7일, 일행은 三井物産 대북지점을 찾아가 홍삼 판매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이어 臺北信用組合 2층으로 홍삼 판매인 張清港을 찾아가 홍삼의 홍보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러고는 三井物産의 특약삼호인 捷茂號藥房으로 갔다. 약방의 주인은 공성학과 손봉상에게 홍삼을 꺼내 직접 인삼을 분질러 속이 흰 것을 보이면서 “구해 쓰려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가장 꺼립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산된 제품 중에는 살이 흰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³⁴⁾라고 제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홍삼제품에 대한 이러한 불만은 23년 상해에서도 경험한 것이었다. 당시 상해의 오대삼호들은 “현재 홍삼의 모양은 매우 양호합니다. 그러나 다만 세 가지(흰 껍질의 삼, 홍삼의 몸체가 찢어진 것, 잔뿌리가 갈라진 곳에 검은 점이 있는 것) 결함이 있어 소매상에 팔 때마다 매번 어려움이 많았으니, 이 세 가지를 개량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일입니다.”³⁵⁾라는 건의를 했던 것이었다. 이후에도 시찰단은 대북의 각 인삼 판매점을 두루 방문하여 판매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조사하였지만 대만 내 홍삼 판매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또한 당시 대북시에는 鮮興社蔘莊이라는 인삼농장을 운영하며 한인사회의 지도자로 명망이 높았던 平安北道 義州 출신의 韓材龍이 있었고,³⁶⁾ 鄭錫彬이 운영하는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고려인삼을 판매하는 최대의 유한회사 高麗物産公司³⁷⁾의 지점이 있었지만 시찰단이 그들과 접촉했다는 기록은 없다.³⁸⁾

三井物産이 마련한 臺灣 방문일정을 통해 주목할 점은 개성상인들이 臺灣製糖會社

다.” 김도형, 위의 책, p.211.

34) 공성구, 위의 책, p.38.

35) 공성학, 위의 책, pp.60-61.

36) “현지적응에 성공한 그는 부를 축적한 대표적인 재산가로서 명성이 자자한 인물이었다.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 한재룡은 1903년경에 대만으로 이주했다. 한재룡은 무역을 통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부족한 재원이지만 “在臺同胞를 위하여 自己의 經營하는 蔘莊을 一層 더 擴張하고 同胞의 救濟方針을 永久히 繼續코저”하였다. 때문에 그가 “營經하는 鮮興社라는 蔘莊은 無衣無食한 同胞兄弟의 收容所라 하야도 過言이 아니었었다.” 한인 이주자의 증가는 국외 독립운동기반을 확대·강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http://oversea.i815.or.kr/country/?mode=V&m_no=TW00009

37) 高麗物産公司是 南洋에서도 비교적 풍족한 자본과 조직적 규모 하에 4,5개소의 본지점을 두고 근대식 광고 선전을 통해 인삼을 판매 했다. 이 조직을 통해 한인들이 동남아 각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가 중에는 이 회사의 직원으로 고용되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고려물산공사는 독립운동가들이 자유롭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연락망을 갖고 있었으며, 안정된 직업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었다. 당시의 건물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으며, 상점이 들어서 있다. 근방은 지금도 한약방가로 유명하며, 고려인삼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대단하다.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http://oversea.i815.or.kr/country/?mode=V&m_no=TW00007.

38) 시찰단이 대만에 체류하고 있던 5월 14일에는 趙明河 의사가 일본육군대장을 척살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독립자금 마련을 위해 來臺 했던 丹齋 申采浩 선생이 기류항에서 체포되었지만 개성상인들은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의 중역을 만났고, 恒春에 있는 屏東製糖會社 사원과 동행 대만제당회사 출장소를 방문하고, 臺南에서는 직접 대만제당회사를 시찰하였다는 것이다. 1925년 공성학은 개성의 유지들과 함께 開城釀造株式會社를 창립하고 사장을 맡았다. 원래 개성의 시민 대다수가 소주를 애용하여 자가용 소주제조면허가 있어 각기 기호대로 양조 사용해 오던 중 1925년부터 돌연히 관청에서 그 면허 전부를 몰수하게 되어 시민은 갑자기 곤란을 느끼게 되었는데,³⁹⁾ 이때 개성양조를 창립한 것이다. 당시 서북5도의 양조업자들은 전통적인 소주 제조방법을 벗어나 혁신을 도모하고 있었다.⁴⁰⁾ 1926년 7월부터 부산의 增水釀造所에서 대만산 糖蜜과 南洋產 타피오카 등을 직수입해 정교한 연속식 증류기를 사용한 신식소주를 대량 생산하면서 큰 환영을 받고 있었다는⁴¹⁾ 사실에 근거한다면 당시 개성상인들의 대만 방문목적이 홍삼 판로에 대한 시찰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사업인 양조산업의 주원료인 대만산 당밀 수입에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 시찰을 마친 일행은 5월 14일 선편으로 廈門에 도착하였다. 상해와 홍콩의 중간에 위치한 하문은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인삼 판매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다. 당시 하문에는 三井物產과 홍삼 특약판매관계를 맺은 朝德泰, 豐美參戶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상해와 홍콩 다음으로 많은 홍삼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하문에는 興士團에 속한 한인 鄭濟亨이 경영하던 太白山人蔘公司가 있었다. 홍콩에 본점을 둔 태백산인삼공사는 하문과 汕頭에 지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재중 한인 인삼상들의 거점이자 독립운동가의 연락장소였다.⁴²⁾ 시찰단 공성구의 친구였던 정제형은 일행의 하문 방문 소식을 접하고, 일행이 타고 있는 배를 방문하여 손봉상 등과 인사를 나누고, 다음날 일행을 모시고 하문을 관광하기로 약속 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三井物產과 총독부는 정제형이 임시정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의 상점에서 마련된 자금이 독립운동 진영에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가와카미 등 三井物產 현지직원들은 안전상의 문제로 시찰단과 정제형의 만남을 방해했다고 추론된다.

5월 17일 일행은 마침내 홍콩에 도착하였다. 지난 1923년 이후 삼업조합은 홍콩에서 인삼을 경영한 것이 여러 해 되었지만 현지를 방문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었

39) 『朝鮮日報』, 1927.01.05. 「將來有望한 開城釀造 年産額三千石」

40) “192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소주의 본고장이었던 서북5도(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의 조선인 소주 생산업자들은 조선총독부에서 추진한 소주업정비 3개년 계획의 시행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통적 방식의 소주 제조에서 벗어나 흑국(黑麴)소주 제조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김승, 「식민지시기 부산지역 주조업(酒造業)의 현황과 의미」, 『역사와 경계』, 95, 2015, p.93.

41) 김승, 위의 논문, pp.89-99.

42) 김광재, 「日帝時期 上海 高麗人蔘 商人들의 活動」, 『韓國獨立運動史研究』, 제40집, p.245.

다. 홍콩에 도착한 시찰단은 三井物産 상해지점 사원 나카무라 야지로(中村彌次郎)의 방문도 받았다. 1923년 시찰단이 상해를 방문했을 때 杭州를 안내하며 인연을 맺었던 그는 홍삼 판로를 시찰할 목적으로 南洋諸島, 싱가포르, 방콕 등 홍삼을 새로이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다. 나카무라와의 만남을 통해 三井物産 상해지점이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사업을 주관하는 곳임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일행은 三井物産의 지정 판매상인 順泰行과 利源長 등을 찾아 홍삼의 판매 상황과 수요 관계를 알아보고, 다음날에도 義順, 泰同, 太仁 등 三井物産이 지정한 상호를 방문하여 홍삼과 각국 인삼매매의 수급가격 등 실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상해로 가는 배를 기다리기 위해 홍콩에 체류하던 일행은 마카오, 廣州 등지를 방문했지만 홍삼판매와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남기지 않았다.

1923년 시찰단은 三井物産의 주선으로 상해에서 생산자와 중계인, 판매인이 함께 모여 홍삼 판매현황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홍삼판로의 전체적인 형국과 백삼수출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홍삼 판매에 있어 상해만큼이나 중요한 도시 홍콩을 방문했지만 손봉상과 공성학은 三井物産으로부터 홍삼 판매상황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던 것 같다. 대만과 홍콩 시찰을 마치고 귀국을 위해 상해에 도착한 일행은 三井物産 상해지점장의 만찬 초대를 받았다.

식사를 끝내고 마당 연못가의 언덕 위에 있는 露臺에서 바람을 쐬며 한가로운 대화를 하다가 인삼 판매와 수급 현황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지점장이 “홍삼 판로를 확장할 때 물품이 부족한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5,000근을 추가하여 만들 계획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비로소 그 수요와 공급의 실정을 알게 되었다.⁴³⁾

위의 간략한 기록을 통해 개성상인들은 일정을 마무리 하는 만찬석상에서 상해지점장의 입을 통해 홍삼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실정을 처음 듣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홍삼 제조량에 대한 중요한 결정이 三井物産 상해지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바닷길로 대만에 들어갔다가 홍콩, 상해를 둘러보고 귀국한 손봉상의 회고에는 이때 가졌던 불편한 심경이 들어있다.

이번 여행은 홍삼의 판로를 시찰하기 위해서였으니, 홍삼이란 것은 과연 우리 동방의 특산품이 아니던가. 황포 이남에는 100만 명이 사는 큰 도시가 과연 한둘이 아니었기에, 홍삼을 1년에 십수만 근을 생산하더라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을 것이나, 가난한

43) 공성구, 위의 책, p.99.

지식인 놈들의 눈구멍이 혹 계산을 잘못된 것이 있지 않았던가.⁴⁴⁾

손봉상은 대만과 함께 홍콩, 하문, 광주, 福州, 汕頭 등 중국 남부의 대도시를 방문하였지만 三井物産으로부터 홍삼 판매와 관련한 특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남부와 동남아 인삼시장에 대한 확신을 가진 그는 홍삼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백삼 수출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었다. 개성상인과 三井物産 사이의 관계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4. 開城商人和 在中 韓人 人蔘商

홍삼을 만드는데 적당하지 못한 退却蔘은 삼업조합에서 공동으로 白蔘製造場을 설치하여 놓고 백삼을 생산하였다.⁴⁵⁾ 때문에 개성삼업조합장 손봉상 등은 1920년 高麗蔘業社를 대규모로 확장하고 백삼을 통일적으로 경영하기로 하였고,⁴⁶⁾ 백삼의 해외 판로 다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손봉상과 공성학은 두 차례 홍삼 판로를 시찰하였지만 三井物産이 안배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기 때문인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인 인삼상인들을 만났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 본장에서는 시찰단이 上海에서 만난 倍達公司 玉觀彬과 志成公司 李惟善을 통해 백삼과 인삼제품 판로 다변화에 대한 개성상인들의 노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上海의 人蔘商 玉觀彬

일제강점기 상해에서 고려인삼을 취급했던 한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은 여러 곳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곳은 1914년 韓鎭敎가 설립했던 海松洋行이었다. 그 외에도 金時文의 金文公司⁴⁷⁾, 趙相變의 元昌公司, 玉觀彬의 倍達公司, 김홍서의 三盛公司 등이 있었고,⁴⁸⁾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많은 인삼행상들이 있었다. 1923년 봄, 삼업조합시찰단의 상해 방문 소식은 현지 한인사회에 알려졌고, 인삼판매와 관련된 사람들은

44) 孫鳳祥, 『香臺紀覽』序: “紅蔘果非我東特產耶. 黃浦以南, 百萬衆大都市, 果非一二, 則年產十數萬斤, 足可以消費, 然措大眼孔, 或無錯算乎否.”

45) 『東亞日報』, 1923.11.04, 「朝鮮名産인 人蔘은」.

46) 『東亞日報』, 1920.06.21, 「高麗蔘業社擴張」.

47) “1920년대 초 上海에 유학했던 언론인 禹昇圭는 韓鎭敎의 海松洋行, 金時文의 金文公司를 滿洲 安東의 怡隆洋行이나 釜山의 白山商會에 비유하면서 그들을 ‘銃대 없는 商人獨立軍’이라고 하였다.” 禹昇圭, 『나절로 漫筆』, 探求堂, 1978, pp.57-58.

48) 김광재, 「日帝時期 上海 高麗人蔘 商人들의 活動」, 『韓國獨立運動史研究』, 第40集, p.225.

시찰단의 방문이 백삼무역을 활성화하고, 해외무역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中國人은高麗人蔘에對한傳習の大信仰이有하니萬一相當한機關에서相當한資本으로白蔘輸出만計劃하야도其相益이紅蔘에서不下하리라는一半實業家의定平이잇슬뿐이더니今回開城蔘業家代表一行이實地를踏査코져來滬한다하니그一行이經濟上으로보아時代的美譽임을贊成不已하는바로다. …… 開城人士가商業上의天才가잇슴은五百年來의正平이有한대他地方보다率先하야對中貿易의必要를覺悟하고斯學를決行하니實로우리商界의模範이될지로다吾人은今回蔘業視察團諸氏의來滬에際하야無限한敬愛와無量한希望을傾하야歡迎의微誠을表하는것은實로吾族의海外發展에對한一新記錄을添함으로써라願컨대半島商界에有志父兄은海外貿易에對한思想을가지고먼저觀光視察한後에適當한事業을만히振興케하심을切切히비노라⁴⁹⁾

상해에서 활동하던 한인 인삼상과 기업가들은 대규모의 자본을 갖춘 개성상인들의 현지 방문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시찰단이 만난 인물은 옥관빈이 유일했다. 한말 청년애국지사이자 상해 굴지의 한인 실업가로 유명했던 옥관빈은 倍達公司를 운영하면서 고려인삼의 수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옥관빈은 1923년 1월 高麗人蔘精의 중국 수출 길을 열기위해 중형 玉有彬을 개성에 출장 보냈고, 2월 1일부터 5일까지 朝鮮日報에 「高麗人蔘輸出에 對하여- 특히 開城蔘業家諸氏에게(1-5)」라는 다소 도발적인 기고문을 연재하였다. 옥관빈은 “工業이 發展하지 못하고 物産이 貧弱한 現今의 半島의 狀況을 考慮할 때 가장 適切한 海外貿易商品은 高麗人蔘이 있을 뿐”⁵⁰⁾이라고 하고, 공개적으로 개성지역 삼엽가 제씨에게 중국에 있어 고려인삼의 무한한 판매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中國地方에旅行하면藥房藥局마다其門前其店面에『高麗人蔘』四大字를黃金大字로大書特書한懸板을掛치아니한者가無하나니此로써볼지라도中國人이高麗人蔘에對하야얼마나寶貴로奉하는지를可히想像할지며印度의棉花, 濠州의羊毛, 中國의紅茶, 高麗의人蔘은 世界의有名한特産이된지라故로余가世界各國의商人으로더부러貿易品을談論할時마다高麗人蔘은朝鮮의特産品이라함을往往聞之하니이로써보건대中國人뿐아니라世界各國人이舉皆高麗人蔘의聲價를認定하는모양이러라.⁵¹⁾

옥관빈은 중국인들이 알고 있는 인삼은 오직 고려홍삼인데 ‘5·4운동’ 이후 일본상

49) 『朝鮮日報』, 1923.06.06, 「開城蔘業組合員 上海視察團을 歡迎」.

50) 『朝鮮日報』, 1923.02.01, 「高麗人蔘輸出에 對하여(1) - 특히 開城蔘業家諸氏에게」.

51) 『朝鮮日報』, 1923.02.02, 「高麗人蔘輸出에 對하여(2) - 특히 開城蔘業家諸氏에게」.

품에 대한 배척이 극렬해지면서 일본사람이 팔고 있는 홍삼이 일본제품으로 오인되어 중국 각지의 三井物産 창고에는 홍삼 재고가 산적하고 있다고 하고, 이를 한인들이 판매하면 일본상품 배척의 영향을 받지 않아 그 판매실적이 다대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三井物産이 오직 현지 중국인들과 거래하는 경영방침을 비판하고, 한인들의 참여를 허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⁵²⁾ 옥관빈의 이러한 기고는 개성 삼업조합의 책임자들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나 전매국 등 홍삼과 관련 된 사람들에게 일정한 인상을 남겼을 것이다. 때문인지 손봉상은 출국에 앞서 고려삼업사 사장의 신분으로 옥관빈에게 인삼사업과 관련하여 미리 연락을 취하였다.

시찰단의 일정에 대한 정보를 가진 옥관빈은 여러 차례 일행의 숙소로 전화도 걸고 서신을 보내왔다. 그러나 三井物産이 마련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시찰단은 상해를 떠나는 날 오전에야 겨우 그를 만날 수 있었다.⁵³⁾ 손봉상이 옥관빈을 만나고자 한 이유는 아마 그가 제기한 백삼과 紅蔘精 수출과 판매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국내에 보도된 신문 기사를 참고 하면 당시 옥관빈은 손봉상에게 백삼 수출방안뿐만 아니라, 7월 중순 南洋에 위치한 네덜란드령 자바섬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개성인삼제품을 출품하자는 제의를 하고, 동의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삼업회사에 제조하는 백삼(白蔘)인삼(人蔘)인삼커피당(珈琲糖)인삼엿(人蔘飴)인삼가루(粉)인삼전과(煎果)등을 그박람회에출품코져하야목하상해에잇는화란(和蘭)령사와 교섭하는중이며 또손봉상씨는이번중국방면에인삼판로를실행시찰한결과그판로의무한함과그잠재력의유망을 확신하야본국으로돌아온후 씨의아달 손홍준(孫洪駿)씨를다시상해에 보내여상해에지덤을두고남화(南華)남양(南洋)방면에고려인삼을수출하기로결심하였다더라(상해).⁵⁴⁾

손봉상은 상해에서 개성삼업조합장의 신분으로 三井物産 支店 紅蔘係 직원들과 중국인 인삼상인들을 만나 남양과 중부 남부지역 도시의 홍삼 판매 상황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려삼업사 사장의 신분으로 옥관빈을 만나 백삼뿐만 아니라 홍삼정 등 인삼제품의 중국 판매에 대한 충분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바섬에 열리는 무역박람회에 개성인삼제품을 출품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귀국 후에는 이러한

52) 『朝鮮日報』, 1923.02.03, 「高麗人蔘輸出에 對하여(3) - 특히 開城蔘業家諸氏에게」.

53) 공성학은 옥관빈에 대해 “얼굴 따로 이름 따로 아는 사람이었는데, 풍채를 한번 보니 진실로 옥 같은 사람이었고, 뜻은 빼어났으며 이야기에 운치가 있어 상해에 들어온 날 일찌감치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고 일기에 적고 있다. 공성학, 위의 책, p.106

54) 『朝鮮日報』, 1923.06.11, 「和領博覽會에 朝鮮人蔘輸出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그의 아들 손홍준을 상해에 보내 지점을 설치하고 화남지역과 남양에 대한 고려인삼 수출을 강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⁵⁵⁾

2) 上海의 人蔘商 李惟善

1928년 귀국길에 손봉상과 공성학이 상해에서 만난 한인 인삼상인은 옥관빈과志成公司의 주인인 李惟善 두 사람이었다. 이유선은 자신을 李容翊(1854-1907) 시대에 상해에 와서 머무르면서 인삼을 판매하고, 독일 약품도 함께 취급한다고 소개하였다.⁵⁶⁾ 공성구는 이유선을 용모가 단정한 사람이며, 그와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유선에 대한 사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상해에 자리를 잡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보부상 출신의 이용익은 閔泳翊의 천거로 高宗의 신임을 얻어 光武 1년(1897) 宮內府 內藏院卿에 취임하였고, 農商工部에 귀속되어 있던 광산과 度支部 관장 하에 있던 蔘圃를 內藏院에 이관시키고, 1899년 왕실의 재원 확충을 위하여 한국 최초의 인삼전매회사 蔘政社⁵⁷⁾를 설립하여 大韓帝國의 蔘政을 주관하였지만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모든 관직에서 파면되고, 해외를 유랑하면서 구국운동을 펼치다가 러시아에서 객사한 ‘親露反日’ 성향의 인물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다면 이유선이 상해에 정착한 시점은 대략 1900년대 초반이며, 그가 상해에서 설립한 지성공사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장 오래된 고려인삼상점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유선은 손봉상과 공성학이 존경하는 개성지역 儒林과 문인들의 정신적 지도자 滄江 金澤榮과 일정한 관계를 가진 인물로 추정된다. 1909년 蘇州 東吳大學에서 유학하던 개성의 부잣집 자제 金東成은 하계방학 귀국길에 상해에 들러 이유선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河相驥와 金澤榮 같은 韓末의 정객들을 만났다고 회고하였다.

그때 귀국도중 上海 李惟善씨집에 들르니 우리나라 政客이 많이集合하였고 韓末大詩人 滄江 金澤榮先生도 南通州에서 거기까지 와있었으나 先生에 대한 記事는 後日로 미루고 거시서 相逢한 一老政客을 소개하는 것이다. …… 나는 仁川監理 河相驥요,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中國으로 避身한지 두 달이 되어 나의 生死를 우리 집에서 모르고 있으니 편지 한 장을 전해주면 고맙겠소.⁵⁸⁾

55) 『朝鮮日報』, 1923.06.06, 「人蔘販路視察團 開城蔘業組合代表. 1923.06.11, 「和領博覽會에 朝鮮人蔘出品」.

56) 공성구, 위의 책, p.92.

57) 삼정사는 인삼을 경작하는 삼포를 감독하고, 홍삼의 제조 및 판매를 관장하는 기업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삼세수납을 대행하는 징세기관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김동성의 회고에 따르면 1905년 중국의 南通으로 망명한 김택영은 연락선을 타고 가끔 한국인이 내왕하는 상해를 방문하였고,⁵⁹⁾ 중국으로 피신하여 이유선의 집에 집합한 河相驤와 같은 韓末의 정객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었다. 이는 이유선이 농상공부나 탁지부와 깊은 관계를 가진 인물일 수 있으며, 고종으로부터 홍삼 1만근을 받아 상해에서 활동했던 민영익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上海惟善洋行 李惟善씨는 二十餘年前부터 至今까지 中國은 물론이요 南洋과 露西亞와 米國等지로 두루다니며 商業에 대한 經驗이 豊富한 사람임으로 鐘路 中央青年會社會部에서는 氏를 請邀하여 …… 講演會를 開催한다는데 문에는 “中國과 歐美의 朝鮮人商業狀況” 이라더라.⁶⁰⁾

1926년 8월 13일자 『東亞日報』에 실린 기사와 위의 단편적인 자료들을 종합하면 이유선은 늦어도 1906년 이전 조선을 떠나 중국과 남양 등지를 다니며 상업에 종사했고, 러시아와 구미지역을 다니며 경제활동에 나섰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927년 이유선은 상해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유지들을 모아 “조선 상업을 각국에 소개 발전 코저 오는 삼월부터 상해 미국총상회 안에 朝鮮物産展覽會를 개최하기로 하고 우선 金燦山씨를 조선 내지에 특파하여 조선 내지 상업가와 연락을 도모하는 동시에 대외무역에 동의를 얻고자”⁶¹⁾하였다. 당시 국내 언론에 소개된 기사를 통해서 볼 때 이유선은 미국의 상해상업회의소를 이용하여 조선물산전람회를 개최할 만큼 상당한 신임과 능력을 가진 상인이었고, 그가 운영하던 志成公司는 상해임시정부에 자금지원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⁶²⁾

손봉상과 공성학이 상해에서 이유선을 만난 것은 김택영의 소개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⁶³⁾ 6월 1일 상해에 도착한 두 사람은 바로 이유선을 만났고, 다음날에는 직접 지성공사를 방문하여 이유선을 통해 선약을 잡아놓고 기다리던 중국 인삼

58) 김동성, 「나의 師友錄 13」, 『京鄉新聞』, 1967.11.08.

59) 김동성, 「나의 師友錄 14」, 『京鄉新聞』, 1967.11.11.

60) 『東亞日報』, 1926.08.13, 「中國과 歐米에 同胞商業狀況: 明日밤 青年會館에서 李惟善 講演」.

61) 『朝鮮日報』, 1927.02.27, 「中國上海에 朝鮮物産展」.

62) 『한민족독립운동사』 7권에는 “김규식의 知己이며 상해에 자산을 갖고 있는 徐秉奎가 년 5백불을 쾌척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도 힘입은 바 컸다.” 註에 “上海稅關에 근무하며 月400~500불의 수입이 있고 上海 北四川路에 志成公司라는 무역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한국교포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63) 孫鳳祥도 1908년 度支部 蔘政課 囑託의 職位를 가진 바가 있어 개연성은 있으나, 일기 내용에 근거하면 두 사람이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닌 듯하다.

상인 馮子卿과 沈堯天을 만났다. 6월 3일, 고려삼업사 사장 ‘人蔘王’ 손봉상은 중국 인삼상인과 春尾蔘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에 대해 장시간 협상을 가졌으며, 출발 전날에도 이유선과 옥관빈의 상점을 방문하고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이 외에도 金時文이 경영하는 金文公司가 ‘高麗蔘業社 中國經理’라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했다는 사실은 손봉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일이다.⁶⁴⁾ 하지만 이들이 김 시문을 만났다는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

5. 나오는 말

반식민지의 중국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에 예속적이면서도 반제국주의적인 계기를 가진 민족자본이 성장했지만 완전 식민지 조선에서는 그러한 민족자본의 성장은 용이하지 않았다. 민족자본으로 성장했다면 총독부와의 협조의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딜레마가 있었던 것이다.⁶⁵⁾ 개성삼업조합장 손봉상과 부조합장 공성학은 1923년과 28년 조선총독부 전매국과 홍삼의 독점판매권을 불하받은 三井物産의 권유로 중국 내 홍삼판로를 시찰하였다. 첫 번째 시찰을 다녀온 후, 공성학은 자신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개괄하였다.

그저 燕趙의 시가지를 배회하며 고려의 野蔘 현황에 대해 묻고 다녔으므로 이 여행 기록은 피상적이고 빈껍데기에 불과하다. 게다가 손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여 보고 들은 것이 마치 隔靴搔癢하는 격이었고 바람이 불고 비가 퍼부어도 일정에 따라 강행했으니 시찰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끄러웠다. 그러나 얇은 식견으로도 오히려 바다 너머 망망한 타국에서 만에 하나라도 얻은 바는 있을 것이다. 이에 전말을 기록하여 여러분의 웃음거리로 삼고자 한다.⁶⁶⁾

공성학의 회고에 따르면 홍삼판매권을 갖지 못한 그들 개성상인들이 현지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인삼시장의 현황에 대해 묻고 다니는 피상적인 시찰활동 뿐이었다. 또한, 三井物産이 마련한 촉박한 일정 때문에 시장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탐문을 진행할 수도 없었고, 더군다나 중국말을 할 수 없어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마치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 성에 차지 않는 시찰활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상인들은 상해에서 三井物産 支店 紅蔘係 직원들과 중국인 인삼상인들을

64) 김광재, 「日帝時期 上海 高麗人蔘 商人들의 活動」, 『韓國獨立運動史研究』, 제40집, p.245.

65) 조경달 저, 최예주 역, 『식민지 조선과 일본』, 2015, 한양대학교출판부, p.98.

66) 공성학, 위의 책, p.254.

만나 남양과 중부 남부지역 도시의 홍삼 판매 상황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옥관빈과의 만남을 통해 자바에서 열리는 박람회에 개성인삼제품을 출품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중국시장에 백삼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기 위해 손봉상의 아들을 파견하여 지점을 개설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이룬 시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28년 대만과 홍콩, 하문, 광주 등 중국 남부의 조선인삼 수요지를 시찰하고 돌아온 개성삼업조합 부조합장 공성학은 7월 2일 총독부 전매국장에게 시찰보고를 마친 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두 번째 시찰과 관련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紅蔘은朝鮮特産이니만치獨舞臺로여기저기서歡迎을받고잇스나白蔘은最近亞米利加로부터輸入되어朝鮮物이驅逐될念慮가잇슴으로將來의우리同業者는매우研究치안흐면아니될줄로생각한다더욱이宣傳이매우巧妙함으로朝鮮物의旗色이아조滋味가없는現狀이다勿論分析한結果에依하면朝鮮物과는當初에比較가 안되나大概큰놈을希望하고잇슴으로耕作方法도研究改良하라고思한다⁶⁷⁾

개성상인들은 두 번의 중국시장 시찰을 통해 三井物産이 주도하는 홍삼 판매상황은 상당히 안정적인데 반해 자신들이 주도하는 백삼의 판매상황은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발전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923년 첫 번째 시찰을 통해 개성상인들은 上海에서 판매되는 滿洲, 美國, 日本 등 각국 백삼의 연간 판매량에 비교하면 “조선산 백삼이 제일 취약해 만약 앞으로 계속 힘써 선전하지 않는다면 신뢰할 만한 판로를 보장받기 곤란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상해에 지점을 내고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시장에 대한 백삼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1928년 두 번째 방문에 있어 개성상인들의 주된 관심은 三井物産의 독점품인 홍삼이 아닌, 그들이 직접 수출하는 백삼에 있었다. 그들은 현지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굵은 인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경작방법을 개선하고 백삼의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범의 아가리’처럼 변해버린 위험한 사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였다. 비록 건강한 민족자본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1920년대 총독부와의 협조의 길을 가면서도 독자적인 발전의 기회를 찾고자 했던 개성상인들의 노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67) 『東亞日報』, 1928.07.06, 「紅蔘은 獨舞臺 白蔘은 樂觀不能 - 米國物에 壓倒되기 쉽다」.

【참고문헌】

- 孔聖求, 『香臺紀覽』, 中央印書局, 1931.
- 공성학, 박동욱·이은주 역, 『中遊日記』, 휴머니스트, 2018.
- 공성구, 박동욱 역, 『香臺紀覽 - 개상성인의 홍삼로드 개척기』, 태학사, 2014.
- 설혜심, 『인삼의 세계사』, 휴머니스트, 2020, pp.41-61.
- 김도형, 『1920년대 이후 일본·동남아시아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55, 독립기념관, 2008, p.211.
- 조경달 지, 최예주 역, 『식민지 조선과 일본』, 2015, 한양대학교출판부, p.98.
-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 근대의 풍경과 지역의 발견 4(경기도·황해도)』, 국학자료원, 2013, p.128.
- 鄭祖恩, 『上海的日本文化地圖』, 上海錦繡文章出版社, 2010, p.12.
- 禹昇圭, 『나질로漫筆』, 探求堂, 1978, pp.57-58.
- 京城商業會議所月報, 『朝鮮經濟雜誌』 第百七十二號, 1930.04.
- 이은주, 「1923년 개성상인의 중국유람기 『中遊日記』 연구」, 『국문학연구』, 제25호, 2012, pp.183-215.
- 陳慶智, 『『香臺紀覽』 기록에 투영된 일제 강점기 臺灣의 모습』,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6집, 2014, pp.247-272.
- 陳慶智, 『『香臺紀覽』을 통해 본 일제 강점기 대만의 교통과 숙박 시설』, 『韓國漢文學研究』, 제57집, 2015, pp.569-609.
- 양정필, 「1910-20년대 개성상인의 백삼(白蔘) 상품화와 판매 확대 활동」, 『의사학』, 2011, pp.83-118.
- 張寅成, 「古代韓國의 道教和 道教文化」, 『成大歷史學報』, 第39號, 2010.10, p.52.
- 許俊雅, 「朝鮮作家朴潤元在臺作品及其臺灣紀行析論」, 『成大中文學報』, 第34期, 2011, p.32.
- 김 승, 「식민지시기 부산지역 주조업(酒造業)의 현황과 의미」, 『역사와 경계』, 95, 2015, pp.89-99.
- 김광재, 「日帝時期 上海 高麗人蔘 商人들의 活動」, 『韓國獨立運動史研究』, 第40集, 2011, p.245.
- 『東亞日報』: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
- 『朝鮮日報』: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
- 『京鄉新聞』: <https://newslibrary.naver.com/search/searchByDate>.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http://oversea.i815.or.kr/country/?mode=V&m_no=TW00007.
-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http://oversea.i815.or.kr/country/?mode=V&m_no=TW00009.
- 『上海醫藥志』: <http://www.shtong.gov.cn>.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孔聖學, 紅蔘, 白蔘, 三井物産, 開城商人				
Key Words	영문	Gong Sung Hak, Red Ginseng, White Ginseng, Mitsui, Kaesong Merchant				
<div><div>A Study on the ‘Red Ginseng Sale Road’ Inspection Notes of Kaesong(開城) Merchants in the 1920s</div><div>Choi, Nack-Min</div><div><p>Ginseng on the Korean Peninsula, along with silk and tea from China and silver from Japan, was an important product that formed the East Asian Trade Network, and is still increasing its value. Ginseng was established as an overseas export product thanks to the efforts of Kaesong merchants. While Japanese colonial era, Bong-sang Son and Sung-hak Gong, who Kaesong merchants were to played a major role in exporting ginseng products to overseas markets. In 1923 and 1928, they visited red ginseng markets in China, Hong Kong, and Taiwan at the invitation of the Mitsui Company. After returning home, they published two books, <i>China sightseeing diary</i>中遊日記 and <i>Travel in Hong Kong and Taiwan</i>香臺紀覽, recording their inspection activities in the red ginseng market.</p><p>In Chapter 2 of this paper, confirmed the perception of the global ginseng market by Kaesong merchants by organizing and analyzing the red ginseng market research records, especially the Shanghai meeting data contained in the <i>China seeing diary</i>. Chapter 3 looked at the passion for the development of red ginseng markets in southern China and Southeast Asia, including Taiwan and Xiamen, based on the record of <i>Travel in Hong Kong and Taiwan</i>. Chapter 4 confirmed the willingness and efforts of Kaesong merchants to develop their own overseas white ginseng sales market, which is not restricted by Mitsui Trading Co., a red ginseng monopoly, through an investigation of Ok Kwan-bin and Lee Yoo-sun, whom they met in Shanghai.</p></div></div>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최낙민 / 崔洛民 / Choi, Nack-Min				
	소 속	韓國海洋大學校 國際海洋問題研究所				
	Em@il	qiushui@kmou.ac.kr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0.11.20	심 사 일	2020.11.30	게재확정일	2020.12.14